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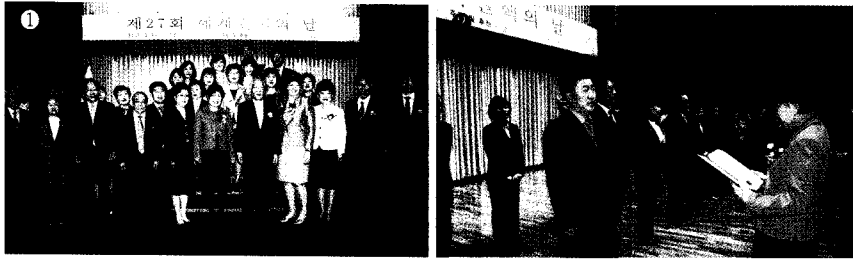
클릭! 현장

##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

자전거마라톤, 국회토론회 홍보캠페인, 기념식 등  
릴레이 홍보 펼쳐

글과 사진\_박연숙(본지기자)





(앞페이지) 출발 직전 모두 함께 빨간 풍선을 날리는 모습.

※ 세계결핵의날 수상자 기념사진 촬영. ※ 유공자들에게 시상하고 있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이다.

독일의 세균학자 로버트 코흐가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던 1982년, IUATLD는 '세계결핵의 날'을 제정하였고, 해마다 전세계에서 이날을 기념한 행사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3월 24일 상공회의소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결핵 관련 유공자 정부 표창 및 복십자대상 시상, 감사패 전달 등이 있었으며, 이어 2부 행사로 2008년도 결핵관리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결핵관리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평가대회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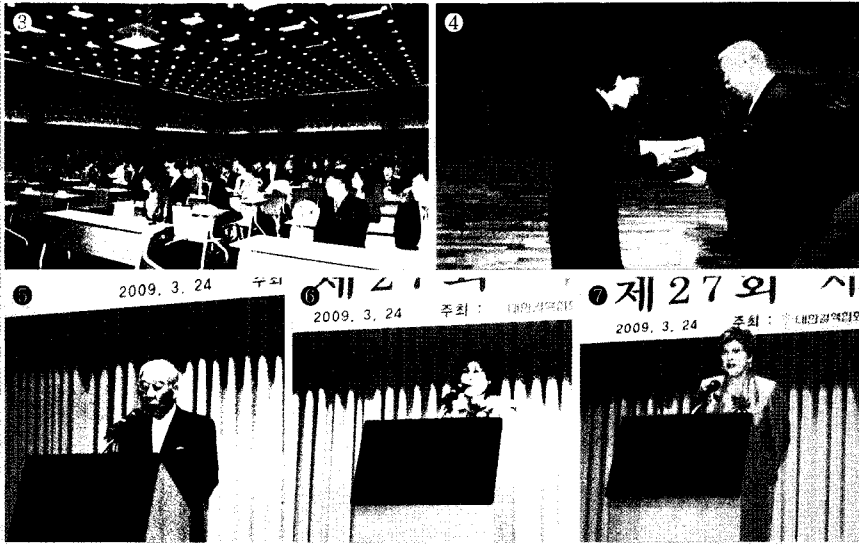
행사 당일 대한결핵협회 직원들은 식전행사로 시청 앞 일대에서 상공회의소까지 시민들에게 결핵을 알리기 위한 거리 홍보 캠페인을 펼쳤으며, 12개 시도지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결핵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2시부터는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다. 개그맨 박세민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XDR 결핵의 심각성을 알리는 영상 및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출연해 세계 결핵 및 우리나라 결핵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 영상이 방영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유공자 표창이 진행되었다. 대통령 표창은 박재석 단국의대 호흡기내과 교수가, 복십자대상은 대구광역시 보건위생과에 근무하는 홍영숙 님이 수상하였다.

이밖에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결핵퇴치 사업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한독약품, 현대기아차그룹, 한국백신 등에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대한결핵협회 김성규 회장은 우리나라 결핵의 조기 퇴치 및 예방을 위해 정부사업의 적극적인 수행은 물론 취약계층의 결핵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 결핵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가 결핵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는 우리나라 결핵문제의 이해를 위해 읽은 책 내용을 소개하며, 결핵 및 의료문제에 있어 한미간의 공조에 힘쓸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올해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손숙미 의원과 임두성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결핵예방법과 관련된 발의를 적극적으로 펼친 바 있으며 결핵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인 손숙미 의원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① 행사가 열린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전경. 이날 행사에는 결핵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② 복지부대상을 수상한 대구광역시 보건위생과 홍영숙 님 ③ 김성규 대한결핵협회장의 기념사  
 ④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가 결핵퇴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시상과 올해 결핵의 날 행사에는 결핵관계자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행사에 이어 2부에는 결핵평가대회가 열렸다. 결핵평가대회는 2008년 한 해 동안의 결핵 관리사업을 평가하는 자리로 최우수 시도에 경상남도가 선정되었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의 인사말로 문을 연 이날 평가대회는 결핵퇴치 2030 소개(유병희 에이즈·결핵관리팀장), 2008년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분석(조은희 에이즈·결핵관리팀 연구관), 병의원 PPM 사업(이현경 부산백병원 조교수), BCG 접종 후 부작용 발생 및 투베르쿨린 반응력 비교(김희진 결핵연구원 기술협력부장) 등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올해는 세계결핵의 날 당일 기념 행사 이외에도 자전거마라톤대회(3. 22), 국회 토론회에서의 결핵홍보(3. 23)까지 3일간 릴레이 홍보 캠페인 벌이는 등 각계각층에 결핵에 대한 인식을 높



전국 12개 시도지부에서는 결핵의 날 당일 결핵퇴치 및 예방 홍보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은 대구·경북지부, 대전·충남지부, 전북지부의 거리 홍보캠페인 모습.

기념식이 열린 상공회의소 앞에서 있었던 결핵퇴치 및 예방 홍보를 위한 거리캠페인 모습.

이는 다양한 홍보활동이 함께 이루어졌다.

「세계 결핵의 날」 기념일에 앞서 3월 22일(일)에는 다국적제약사 한국릴리와 대한결핵협회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가 후원하는 「희망의 빨간풍선」 자전거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였다.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2003년부터 '릴리 다제내성결핵 파트너십'을 통해 다제내성 결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치료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전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다.

참가자 전원이 건강한 폐를 상징하는 빨간풍선을 하늘로 띄우며 결핵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기원하는 세리머니와 함께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을 출발하여 순환로 약 7km를 자전거로 달린 이번 대회는 마라톤 이외에도 무료 결핵검진, 결핵퇴치 대학생 포스터 공모전 우수작품 전시, 즉석 사진 이벤트,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마련되었다.

참가수익금은 결핵요양원 희망의 집에 전액 전달되었다. 사진은 본회 고계인 총장, 한국릴리 사장, 희망의 집 원장수녀님.

자전거마라톤 행사현장에 마련된 결핵홍보관 전경.

출발 직전 자전거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의 상기된 모습.

### 희망의 빨간풍선 자전거 마라톤대회



한편 대회 참가비 전액은 결핵요양시설 '희망의 집'에 기부되어 국내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3월 23일(월)에는 14:00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결핵퇴치를 위한 정책 방향' 입법 토론회장 입구에 국회의원들에게 국가결핵사업 및 국내 결핵문제에 대해 알릴 수 있는 홍보 코너가 마련되었다.

젊은층 결핵 증가나 학교 소집단 발병, 취약계층의 결핵 발병 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내에서도 결핵예방법 개정 등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전시를 국정의 심의, 결정 주체인 국회의원들이 결핵에 대해 바로 알고 현실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 주최로 열린 결핵토론회 모습.
- Ⓢ 국회홍보캠페인에 참가하여 결핵반응검사 및 실명을 듣고 있는 국회 직원들.
- Ⓢ 국회홍보전시관을 찾아 진행된 결핵홍보패널을 유심히 둘러보는 국회 직원들.
- Ⓢ 대한결핵협회는 국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했다.

